



2015년 12월 3주차

■ 연구원 소식

○ 2015년 연구원 부산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 날 짜 : 2015.12.19.(土)~20(日) / 장 소 : 부산, 경남 김해

- 내 용 : 2015년 3차 지역사 문화답사 "부산에서 만나는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12월 19일(土)~20일(日) 양일에 걸쳐, 부산과 경남 김해에 다녀왔습니다. 연구원 회원을 비롯하여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 학과 학생들이 어우러져 세대를 아우르는 즐거운 답사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답사는 부림사건의 피해자이시자 영화 변호인의 임시완씨가 맡은 역할의 실제 주인공이신 고평석 선생님께서 가이드를 맡아주셨습니다. 그렇다보니 여느 답사와 다르게 말씀 하나하나가 귀에 쏙쏙 들어 왔던 답사가 되었습니다.





○ 진안지역자활센터 인문학 강좌

- 날 짜 : 2015년 12월 18일(金) 15시

- 장 소 : 진안지역자활센터 나눔푸드 2층 교육장

- 내 용 : 연구원과 진안지역자활센터는 11월~12월에 다섯 차례의 인문학강좌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마지막으로 김정화 회원이 진안지역자활센터 나눔푸드 2층 교육장에서 "IMF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동북아역사재단 최종심사



- 날 짜 : 2015년 12월 18일(金) 16시
- 장 소 :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세미나실
- 내 용 : 2015년 4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 종료한 동북아역사재단 사업 결과평가 인터뷰 참석요청 공문에 의거하여 이동학 행정실장이 다녀왔습니다. 재단측에서 의뢰한 외부기관에 의해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전반적 진행 상황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2월 21일(월) : 주간회의
- 12월 22일(화) : 재창조위원회 회의(16시 30분)

■ 역사속의 오늘

○ 독일로 떠난 한국 광부 - 1963. 12. 21

: 지금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치부해버리는 나라인 이디오피아나 필리핀의 원조에 숨숨을 구걸하던 것이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업자는 넘쳐났지만 일자리는 없었고, 가난은 안개처럼 나라를 휘감아 뒤덮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외화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마다하지 않았던 그 무렵, 1963년 독일 파견 광부 모집이 시작되었다. 당연히 전국에 독일 바람이 불었다. 500명 정원에 지원자는 4만 6천 명이 몰려들었다. 그 태반은 한국 탄광 광부로 취직하라고 하면 버럭 화를 냈음직한 대학 졸업자들이었다. 흑여 얼굴이 너무 허여멀거면 떨어질까봐 검정칠을 하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시험은 현실적이면서도 간단했다. 60킬로그램 모래 가마니 다섯 번 들어올리기. (파독광부 45년사 - 재독한인글뤽아우프회) 이 시험에 통과한 인텔리 광부들 1진이 1963년 12월 21일 독일을 향한 장도에 오른다. "처자를 두고 가는 광부들은 눈물짓곤 했지만 총각 광부들은 돈 벌이하러 가는 길이라 웃음을 앞세웠다."(서울신문 1963년 12월21일)

해외여행 하기가 조선 시대 백정이 경북궁 입궐하기보다 더 무망했던 시절,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독일 땅에 떨어진 광부들의 모습은 실로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이 일단 배치된 곳은 북부 함본과 남부 애슈바일러 탄광이었다. 독일인들은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지하 1000미터까지 내려가고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는 지옥의 바로 윗칸같은 막장이 초보 광부들을 맞았다. 그곳에서 한국인 광부들은 특하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감독관의 핀잔을 들으며 죽을동살동 땅을 파다가 동료들 만나면 "글뤽 아우프!"를 부르짖었다. '글뤽 아우프'란 (탄 캐고 올라가서) '위에서 보자'는 독일 광부들의 인사였다.

그들이 독일에 실려온 1년 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과 광부들의 눈물의 만남이 당시 뤼브케 서독 대통령까지 감동시켰고 뤼브케 대통령이 눈물을 멈추지 않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독일이 도와 주겠습니다!"고 약속했다는 등의 감동적인 일화가 한동안 인터넷에 회자된 바 있는데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 뤼브케 대통령은 그 만남에 동석하지 않았었고, 그 에피소드에 주요 배역으로 등장하는 한국 간호사들은 독일에 파견되기 전이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부분도 각색의 흔적이 역력하다.

그러나 모든 선입견을 배제하고 볼 때, 그 만남의 자리가 그렇게 사무적이었을 것 같지는 않다. 지지리도 못사는 나라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고자, 또 고국의 가족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어 보고자 지구 반대편의 나라 1천 미터 지하를 곡괭이로 두들기던 이들, "이렇게 파다가는 (지구를 뚫고) 우리 집 앞마당으로 나오겠다."고 농담하던 광부들 앞에 고국의 대통령이 나타났다면 서로 간에 어떤 심경이었겠는가. 목이 메어 애국가를 끝까지 부를 수 있었겠는가. "나의 살던 고향은"이라도 합창했다면 통곡의 바다가 되지 않았겠는가. 거기에 그 냉혹함과는 별도로 눈물은 흔하던 박정희 대통령이라면 거기에 당연히 동조했을 것이고.

한국에서보다 돈은 더 벌었을지 모르지만 파독 광부들은 결국 서럽고도 고달픈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었다. 1965년 4월 6일 한 광산에서 일어난 파업 사태는 그 단면을 보여 준다. 독일 노동자에게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인 광부 한 명이 코뼈가 부러지는 폭행을 당하자 한국인 광부들의 대부분이 입궐을 거부한 것이다. 당시 언론 등에 보도된 한국인 광산 노동자들의 요구조건들을 보면 가슴 한 구석이 시려 온다. "외국인이라고 푸대접하지 마라!.... 폭행 가해자를 인사조치하라! 우리에게 맞는 일자리를 달라 (각종 장비, 작업 조건 등이 독일인에 맞게 맞춰져 있었음)....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서 온 고춧가루를 착취한 통역 (아마 한국인이겠지)은 사실을 밝히고 자진 사퇴하라." (장재림, "서독의 한국인 광부" - 신동아 1969년 5월호)

이때 독일 사업주들이 한국 광부들을 협박했던 주요 레파토리는 “계약 만료 전 한국 광부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귀국할 때 그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비행기 값의 차원이 요즘과는 비교가 안되었던 시절, “꼬우면 알아서 돌아가!” 하는 으름장은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21세기에 파독 광부의 아들, 조카들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즐겨 써먹는 수법이다. 그 횡포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는 맞서 싸우기도 하면서 파독 광부들은 독일의 탄전지대의 지하 세계를 누볐다. 그렇게 한국에서 독일로 떠나갔던 광부들의 수가 14년에 걸쳐 총 7936명이었다.

○ 무등산 타잔 교수대에 서다 - 1980. 12. 24

: 사형 집행이 사실상 ‘무기 연기’된 요즘은 덜 하겠지만, 12월은 사형수들에게 공포의 달이었다. 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 또는 다음 정권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에 서명이 무더기로 이뤄지는 일이 잦았던 탓이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은 97년 12월 30일에 있었다. 이 날 23명이 한꺼번에 목이 매달렸다. 1980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형집행이 있었다. 사형수 가운데에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도 있었다. 그 이름은 박흥숙이었다.

광주 무등산 바람재에서 토끼봉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너덜길 약수터. 그 근처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 있는데 그 발 아래 계곡에 해당하는 동구 운림동 산 145번지 증심사 계곡 덕산골(속칭 무당골)에 그는 살고 있었다. 그의 별명은 ‘타잔’이었다. 이소룡같은 무술 배우를 꿈꾸며 하루에도 몇 번씩 옷통 벗고 무등산을 종횡무진하다 붙은 별명이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법고시 합격의 포부도 가지고 독학에 정진하기도 했던 청년이었다. 이런 무등산 타잔에게 비운의 날이 닥친 것은 1977년 4월 20일이었다.

무당골에 산재해 있던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광주시 철거반원들이 나타난 날이었다. 평범한 아이들의 아버지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그들의 임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집을 부수는 일이었다. 무당골의 철거는 상당히 진행되어 당시 현장에는 박흥숙의 집을 포함하여 4채만 남아 있었다. 봐줄만큼 봐줬다고 생각했던지, 전국체전을 앞둔 상부의 압박이 거센 탓이었는지 철거반원들은 필요 이상의 과잉 행동을 보인다. 몇 안되는 세간을 고집어낸 뒤 ‘철거’가 아니라 ‘방화’를 해 버린 것이다. 즉 집에 불을 질렀다. 박흥숙이 “지붕위에 두른 천막만이라도 건게 해 달라.”고 사정했으나 오불관언이었다.

판자에 천쪼가리만 들렀던 박흥숙의 집은 성능 좋은 불쏘시개였고, 반쯤 정신이 나간 가족들의 비명 속에 활활 타올랐다. 박흥숙의 어머니는 집 안에 모아둔 돈 30만원이라도 건지려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철거반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박흥숙과 그 여동생 박정자와 남동생 둘, 그리고 어머니가 살던 판자집은 이내 '철거 완료'됐다. 이윽고 다른 집을 철거하고 돌아선 철거반장의 눈 앞에 시퍼런 인광을 발하는 박흥숙이 나타났다. 그 손에는 철공소에서 일하던 시절 만들었다는 사제총이 들려 있었다.

나이 서른 아홉부터 스물 일곱까지의 철거반원들은 그들의 임무 때문에 "철거를 위해 불을 지르는" 냉혈한이 되었다가 이제는 청년의 돌아가 버린 눈동자 앞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포로가 됐다. 그들은 노끈으로 목이 묶여 박흥숙이 사법고시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 파 놓았던 구덩이로 밀어 넣어졌다. "광주 시장에게 전화하겠다."고 여동생이 산을 내려간 얼마 뒤 마침내 타잔은 분노의 광기를 터뜨리고 말했다. 포로가 됐던 5명 중 4명이 박흥숙이 휘두른 쇠망치에 목숨을 잃었다.

사건 이후 자수한 박흥숙은 사형 선고를 받는다.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고의적으로, 그것도 4명씩이나 죽여 버린 살인범들에게 관용을 베풀 여유는 유신정부에 없었고, 기실 그 뒤의 어떤 정부도 갖추기 어려운 덕목이었을 것이다. 결국 광주에 피바람이 몰아친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무등산 타잔 박흥숙은 교수대 앞에 선다.

사법고시 합격과 무술배우 이소룡을 꿈꾸며 기운차게 무등산을 뛰어다녔던 효성 지극하고 똑똑했던 한 청년을 죄인으로 만든, 그리고 평범하기 그지없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삶의 터전에 불을 놓게까지 만들었던 이유들은 대체 무엇이였을까. 4명의 머리가 쇠망치로 뭉개지고 한 명의 목숨이 교수대에 매달렸는데, 과연 그 책임은 그들만의 것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박흥숙 외에 그 사건에 책임을 진 사람은 없었으며 비슷한 일은 이후로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죄인이 되었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다.

그 대부분은 대개 너무 평범해서 문제였던 사람들이었다.

무등산 타잔과 불운했던 공무원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지로 내몬 자들을 저주하는 예수였으리라 믿으며 그의 생일을 축하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